'정진과 참회'의 순례..."길은 하나로 통한다"

정영석 기자 | 입력 2021.10.12 16:30 | 수정 2021.10.13 02:10 | 댓글 0

가 가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앵커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순례단의 발길은 경상남도 지역으로 순조롭게 향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길은 누군가에게는 '정진', 누군가에게는 '참회'로 여러 갈래 나눠지지만,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이란 화두가 순례단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흐릿한 한쪽 눈으로 험난한 천리 순례길에 동참한 성계순 씨.

최신뉴스

불교 | 불교 종립 광주 정광중, '로터스관' 개관

문화 • 스포츠 | 한-중 도시 • 관광 교류 활성화 다...

정치 | 문대통령 "한국, 글로벌 백신생산 허브...공...

정치 | 문 대통령, 공수처 검사 8명 임명안 재가.....

전국 | '선을 넘다'...제 12회 광주 여성영화제 내...

포토뉴스

불교 종립 광주 정광중, '로터스관' 개관

인기뉴스

1 우상호 "故 노태우, 공과 평가는 엇갈리지만 역사

2 부산, 윤석열-홍준표 지지 선언 대결 속...'줄세우

3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 으로 ... 정재계

4 [코로나19]부산 코로나 19 신규 확진 49명

5 [코로나19] 접종완료자 총 3천670만9천777명

6 깊어가는 가을, 도심궁궐에서 코로나이후 일상회

순례단과 동고동락하는 과정에서 닫혔던 마음의 눈이 떠졌다고 말합니다.

[성계순 / 호압사 신도: 저는 몸이 한번 아파봐서 그런지 저를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게 많았어요. 그게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고 그럴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먼저 들어야하고, 들어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묵언 수행으로 얻어지고 있습니다.]

빗물에 고인 흙탕물 위를 걸을 때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피는 연꽃을 닮고 싶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처염상정'의 모습에 가까워짐을 느껴봅니다.

[정유림 / 수국사 상월청년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진흙탕도 걷고 그러면서 제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면서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걸어보니까 이렇게 더러워지는 내 모습도 받아들이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순례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두 다리로 지탱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려 최고의 선물이 됐음을 깨닫습니다.

미로와 같은 인생의 기로에서 동참한 순례자의 손에 해답이 놓입니다.

[김호준 / 수국사 상월청년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걷기거든요. 과연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가장 많이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한 그 시작점에서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여전히 그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데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도 찾고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행길의 마지막 삼보성지 통도사에서 사미계와 구족계를 받았던 성화스님에게는 '환지본처'하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성화스님 / 장안사 주지: 저는 출가한 이후 주지 소임을 맡고, 또 복지관 현장에서 관장으로 생활하고,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 크게 수행해 본적이 많지 않습니다. 이 고행도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복지 현장에 있는데 남을 위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마다 갖는 '마음 길'은 서로 다르지만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이란 '화두 길'은 하나로 통했습니다.

[이태경: 이번 순례길은 불교 중흥이 (화두)잖아요. 그 뜻을 이어서 신심을 내서 같이 동참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정진과 참회의 발걸음을 한데 모은 삼보 사찰 순례단은 불보종찰 통도사로 순조롭게 향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영상취재 / 남창오 기자)

정영석 기자 youa14@naver.com 다른기사 보기

8 부산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오늘부터

BBS 칼럼

전경윤의 '세상살이'

전영신의 '시선'

신두식의 '공감노트'

배재수의 '크로키'

이현구의 '스윙 스팟'

선임기자 칼럼

추천 1

반대 0

당신만 안 본 뉴스

강원 초.중.고 전교생에 10만원 상당 '슬기로운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적용" 법제화 시동
윤석열 '개사과' 촬영장소 논란..."해명 석연치 ...
강석호 "김종인, 윤석열 지지하겠다는 생각 바...
[배재수의 크로키] '위드 코로나'와 남산의 가을
[속보] 누리호 위성분리성공
[박경수의 아침저널 클로징] 누리호 '미완의 성...

강원 초.중.고 전교생에 10만원 상당 '슬기로운 문화생활 카드' 지급

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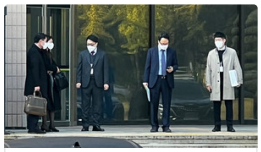
0 / 400

주요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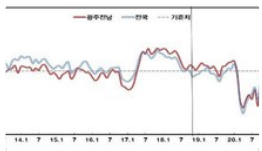
불교 종립 광주 정광중, '로터스관' 개관

한-중 도시・관광 교류 활성화 다짐...2021 한중

문대통령 "한국, 글로벌 백신생산 허브...공평.신


문 대통령, 공수처 검사 8명 임명안 재가...내일

'선을 넘다'...제 12회 광주 여성영화제 내달


광주전남 소비심리 2개월째 상승...전달 대비

BBS불교방송(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종하) | 편집인 :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 NCS